Ⅰ. 현대사 속의 정주영

- **아산 정주영은 한국의 청소년, 나아가 온 국민의 꿈이었다**
  - 맨손으로 일어나 전쟁의 잿더미, 가난의 굴레에서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기업가로, 뜨거운 민족애의 통일 선구자로,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올림픽 유치와 사회 사업에 정열을 바친 사회지도자로 온 국민은 기억할 것임
  - 우리 온 국민은 아산 정주영을 기리며 21세기의 또 다른 정주영이 등장할 것을 고대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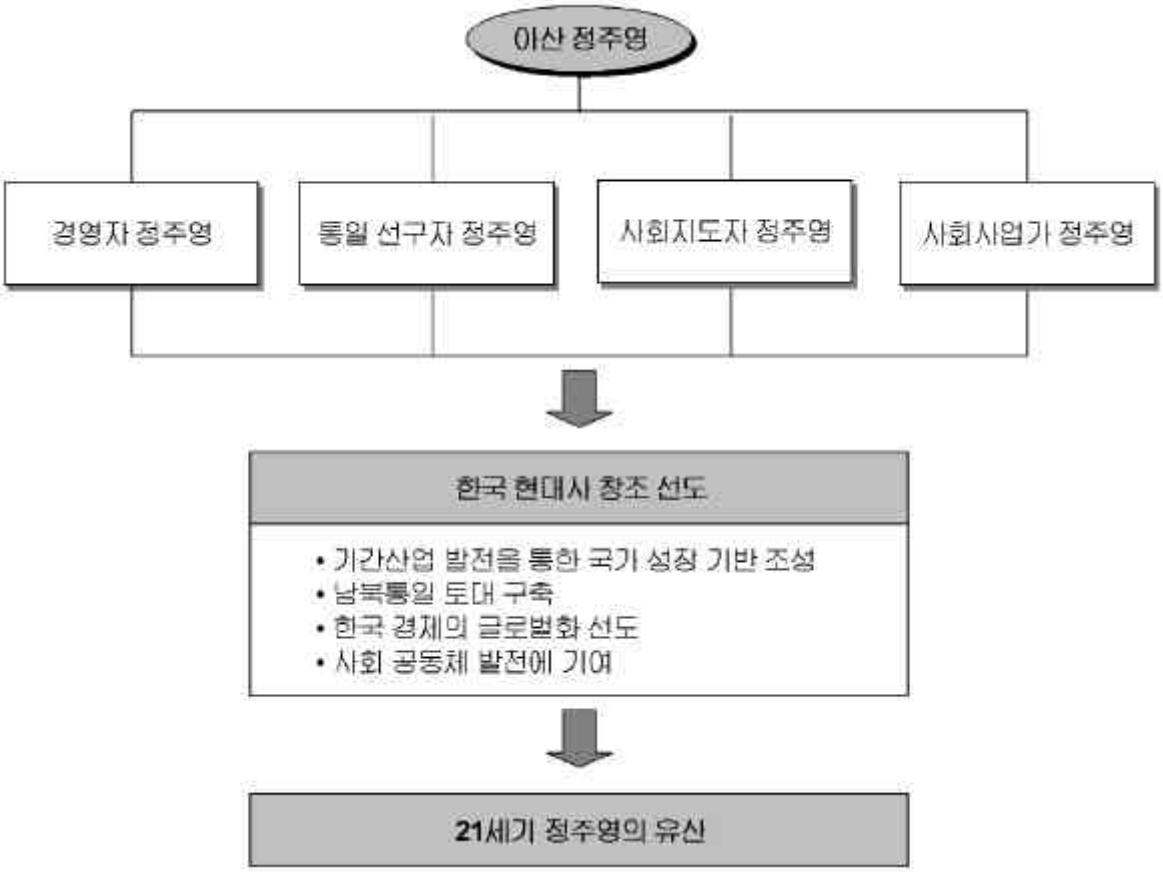
- **아산 정주영이 남긴 유산은 우리 온 국민의 거대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**
  - 이제 아산 정주영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의 업적은 이땅의 영원한 자산으로 남아 한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임
  - 이 자산을 계승, 발전시켜 21세기 선진 한국 창달이라는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후배들의 자랑스런 몫이며 그분 생전의 뜻을 올바르게 살리는 길일 것임

- **아산 정주영은 단순히 한 명의 경제인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일군 선도자였다**
  - 8·15 해방 이후 자본주의 국가와 산업 국가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현대사에서 정주영은 그 창조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
  - 정주영은 개인적 이해를 넘어 보국정신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기반인 사회간접자본과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, 자기 희생과 민족애적 열정으로 남북 통일의 초석을 놓았음
  - 정주영은 세계 시장에의 과감한 도전, 전경련 회장직을 통한 민간경제시대의 주도, 혁신적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끊임없는 신사업 개척으로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
  - 정주영은 올림픽 유치, 체육계 공헌, 문화재단·병원·학교 설립을 통해 한국 사회 발전을 선도하였음

- **아산 정주영은 언제나 민족 번영을 생각하면서 실용적 보국이념을 실천한 애국자였다**
  - 정주영은 이 땅의 가난을 몰아내고 현대의 성장은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투철한 보국이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일에는 과감히 뛰어든 행동가였음
  - 재원이 없던 한국에 저렴한 가격과 신선한 아이디어에 의한 도로, 댐, 항만, 발전소 등의 건설, 허허벌판이었던 미포만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 건설, 개도국에서 유례없는 자동차 산업 부흥 등을 통해 경제 선진화에 앞장섰음
  - 역경 속에서 수많은 중동의 대규모 역사를 완공하고 수출 입국을 이룩해 외화를 가득함으로써 한국 경제 건설에 밑거름이 되었음
  - 위험을 무릅쓴 북한 방문, 희생을 각오한 금강산 관광 사업, 북한 경제 발전 모색 등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넓혀 남북 통일의 초석을 다졌음

- **아산 정주영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과 창의로 무장된 신념의 기업가였다**
  - 정주영은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신념을 소유한 기업가로서 그의 정신 세계의 근저에는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창조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었음
  - 정주영의 이러한 한국적 기업가 정신은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음
  - 정주영은 누구보다 먼저 한국에 중공업 중심의 신사업을 개척해 나갔고, 한국 기업 최초로 해외건설에 도전하여 성공하였으며, 선박과 자동차 수출을 성사시킴으로써 세계 경제 속에 현대의 기치를 드높였음
  - 전경련 회장으로서 정부의 경제 간섭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함으로써 민간 경제 시대를 앞당기는 통찰력 있는 기업가로서 역할을 다하였음

- **아산 정주영은 언제나 기업의 성장과 사회 공동체 발전을 함께 지향하는 모범적 사회지도자였다**
  - 정주영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해야만 자기 자신 및 현대의 발전도 지속될 수 있다는 투철한 공동체 의식을 소유하게 되었음

· 가난한 국민들을 위한 병원 설립, 아산문화재단 설립,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의 '사회적 책임'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음
·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발전의 전환기를 마련하였음
· 자신의 경험을 살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개혁을 선도하고자 정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함으로써 정치지도자로서의 길을 모색하기도 하였음

<그림 1> 아산 정주영과 한국 현대사